

한국에는 기념일 그 자체보다는 기념일의 전후를 기념비 당일보다 더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. 주로 그 기념일의 전후 50日, 100日 등으로 세어서 기념일을 만들기도 합니다.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입시 100일전을 기념하는 날, 애인끼리 사귀기 시작해서 백일날 등을 들 수 있습니다.

입시전에 ‘100일’이라는 것은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상당한 이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한국의 입시인 「수능」 고사를 100일 앞에 두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. 이날에는 고등학생끼리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을 받거나 수험생들끼리 술마시러 갑니다. 또 수험생이 아닌 1·2학년생 후배들도 이 날에는 선배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같이 놀러가기도 합니다. 또 이날에는 거의 모든 학생이 술을 마시러 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날만은 선생이나 어른들이 봐 주는 일이 많습니다.

애인끼리 사귀어서 100일째를 축하하는 날도 ‘100일’이라고 합니다. 이걸 50일, 200일 등 자기 맘대로 결정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‘100일’을 기념합니다. 물론 이날에는 애인사이에 선물을 교환하는게 보통입니다. 한편 이 날에는 친구들에게 100일 축하하는 ‘100원’ 동전을 받기도 합니다. 100원은 적은 돈이지만 친구가 많으면 상당한 돈을 벌 수도 있어서 100일된 커플은 될 수 있는 한 모두에게 축하받으려 할 지도 모릅니다.

이런 기념방법은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있지만 아이디어도 좋고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재미도 있습니다.

앞으로는 또 어떤 기념일이 나올지 기대됩니다.